

아침세평

김요수

광주연합기술지주 대표



그날 아파트 마당이 시끌시끌했다. 난데없이 여자의 비명이 울렸으니까. 다툼의 소리는 높아졌고, 남자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먹질을 했다. 어느 창문에서 들리는 ‘때리지 마!’ 소리와 다른 창문에서 ‘왜 그래?!’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아무 창문이나 보면서 ‘상관하지 마’를 외쳤고, 곳곳의 창문에서 ‘그러지 마’, ‘못된 놈’을 비롯한 욕설까지 울리며 소리들이 뒤엉켰다. 수많은 창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른거렸다. 정치를 지켜보는 것처럼.

여자는 주먹을 피하다 쓰러졌고, 남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더는 주먹을 날리지 않고 자리를 떴다. 다툼과 폭력은 멈췄으나 여자와 남자가 풀어야 할 상처는 깊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도 삶의 파장이 새겨졌고, 여자는 맞을 만큼 잘못을 했을까, 남자는 주먹질할 만큼 화가 났을까? 아니, 잘못된 몸음이다. 다툼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외침과 주먹질이 해결책이었을까? 마당의 소란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 잘못된 몸음으로는 정치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아팠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리쳐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에, 참다가 화병이 생기고, 쌓인 원한이 삶을 찌그러뜨리지 않았

발광체 정치가

는가? ‘누운 나무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속담 있다. 가만있으면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 소란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겠다. 소란에 적극 참여한 사람, 남의 외침에 용기를 내어 주먹질을 막은 사람, 경찰에 신고한 사람, 휩쓸리기 싫어서 창문을 닫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과 판단으로 움직였겠다.

생활 속에 정치 있다. 칼자루 잡았다고 거리낌 없이 칼을 휘두르는 정치, 칼날 잡았다고 무참히 베어지는 정치가 생활 속에 스며들면 공동체는 허물어진다. 정치는 칼자루를 잡는 일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살피는 일이다. 칼날 앞에 선 시민은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가?

언제부턴가 정치인을 뽑을 때 여론조사란 걸 했다. 이기려는 정치인은 여론조사에 목을 맨다. 여론조사는 많지 않은 응답자만의 결과이고, 참여자만을 대변한다. 정치 관심이 적은 사람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휩쓸리기도 한다(솔림 현상).

여론조사만으로 좋은 정치를 만들지 못한다. 여론조사에 등장하는 한두 줄의 경력만으로 출마자의 됃됨이를 알지 못하니까. 민주주의는 사람이 주인인데 갑자기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의 주인이 됐다.

돈이 주인이 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겨야 하나? 공짜 여론조사는 없으니까, 돈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겠다.

신라시대 화백제도와 교황선출 콘클라베의 만장일치가 떠오른다. 다수의 행보를 위한 정책과 미래 가치를 토론하고 설득하지 않았을까? 뽑는 사람의 생각이 적용되거나 ‘누가’ 뽑느냐도 중요했겠다. 그렇다고 내 편만을 체육관에 가둬두고 뽑거나 여론조사로만 뽑는다면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인과 정치가를 구별해야 한다. 정치인은 제 잇속을 챙기려고 대중을 끌어들이고,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 정치가는 공동체의 잇속을 찾아서 대중과 함께 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할까?

‘어디에 기부했느냐’를 보겠다는 사람이 있다. 기부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남아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면서! 기부는 그 사람의 마음과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종교단체에만 기부를 했다고?

‘자기 주장(정책)을 보겠다’는 사람도 있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 적어도 나라를 팔아먹지 않을 테니까. 잘못을 보면 고치고, 힘 앞에 줄 서지 않고, 돈 앞에 휩쓸리지 않을 테니까! 폭력과 불법을 옳다고 했다고?

‘도전과 열정을 보겠다’는 사람, 남을 따라 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가문의 영광이나 제 밥그릇만 챙기니까! 남의 것을 베끼고, 남의 공을 빼앗는 데 전수라고?

‘성장과정을 보겠다’, 사람은 좀체 바뀌지 않으니 몸에 배인 그의 상식을 볼 수 있고, 마음에 배인 그의 원칙을 볼 수 있으니까! 새지기를 당연하게 여긴다고? 실력이 아니라 꼼수로 자리를 차지했다고?

‘고마움을 아는가’를 보겠다. 고마움은 주변을 인정하는 일이고, 고마움을 모르면 아첨꾼의 말에 넘어가 우리의 삶을 망치고 나라를 무너뜨리니까! 거들먹거리며 남 탓만 한다고? 가까운 우리 정치인들을 대비해보면 그 모습이 그냥 보이겠다. 남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반사체 정치인은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 정치가가 필요하다.

기고

조익수

좋은인재교육 대표



2026년 2분기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대졸’ 실업자가 48만명을 넘어 5년 만에 가장 많았다는 국가데이터처 자료 보도가 있었다. 이 내용 중 취업 경험이 없는 실업자는 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2026년 상반기 작중별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중 부족인원(2026년 4월 1일 기준)은 46만 7000명으로 전년동기와 유사, 2026년 2~3분기 채용계획 인원은 4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0명(-1.8%) 감소했다고 한다.

최근 이 2가지 발표는 채용시장과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이해되는 내용 조사내용이다.

사업체의 부족한 인원은 있는데, 그에 대비 채용 계획 인원이 적다는 것은 채용 규모가 줄었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채용 규모의 축소는 신입의 진출 기회를 줄일 것이고, 특히 대학 졸업자의 실업은 당연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은 타당하게 들릴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조사한 2024년 상반기 대기업 채용동향인식 조사를 보면 지난해 대졸 신입 입사인원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25.7% (2023년)로 4명 중 1명이 중소기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위 조사는 졸업한 신입 지원자, 기업체의 채용 규모, 지

신입이 선택한 사다리 정책은

난 채용 결과를 통해 줄여주고 있는 채용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력과 같은 이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더라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신입 구직자들에게는 체감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직무부트 캠프 또는 일경험, 인턴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기업들의 경력자 선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노력한 시간은 신입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업 지원 시 서류, 면접에서 기업체 근무 경험을 통해 갖게 된 자신감으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중 정책 사업 일경험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데도, 많은 지원자가 희망하는 기업, 직무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하다. 지원 과정에서 똑같이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선택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제한된 조건이 있다. 그중 하나는 예산이며,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있다. 지원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아닌 정책 사업 일경험에 도전할 때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장 면접관으로 참여해 보면, 일경험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더 적합한 사람, 더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평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원자의 답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다. ‘이해는 되는데, 설득은 안 되는데’ 평가자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원자라면, 자신이 이 정책의 경험이 필요한 이유와 목표가 드러나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선택받은 지원자 중에 이 부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경험 참여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또 하나의 스펙 같은 이력으로 남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

청년·신입을 위한 일경험의 사업에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참여했다면, 기업들이 선호하는 중소기업의 장점을 갖추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결국 자신에게 적합한 정책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정말 식상할 수 있지만, ‘자기이해’라는 단어와 ‘자기분석’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다.

그래야 선택한 이유를 찾아 타당성 있게 설득할 수 있고, 목표를 찾아 참여 후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갖추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담당자들은 일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지원직무와 같은 일경험이 아니라도 경험한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다. 이것은 기업 입장이다.

지원자 입장에서 같은 시간에 더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찾은 사다리는 여러분의 목표 지점으로 이동시켜 줄 것이다.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폭행으로 해당 구급대원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면 다른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 늦어질 수 있다. 출동 인력의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양형기준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업무가 단순한 업무방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적 업무라는 점을 법원이 형량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물론 처벌 강화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구급대원이 폭행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장비와 경찰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폭행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구급대원을 폭행해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구급대원을 때리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진다’는 분명한 사회적 신호가 필요할 때다.

사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로드맵 현실화 중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로드맵이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연도별 실행계획이 담긴 ‘조기 가동을 위한 자원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주로 이 프로젝트의 뼈대를 세우는 데 집중한다고 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 중인 조사·설계 관련 용역과 발주 절차에 속도를 내고 10월까지 반도체 기업 입주 협약을 체결. 11~12월에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에는 통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인허가와 설계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산단 계획 수립과 설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2028년까지는 산단 관련 행정절차와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 군공항 기능 재배치 등 팍 착공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배치해 산단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전력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LNG 발전 등을 활용하는 한편 기존 전력망을 산단까지 연결하기로 했다.

또 용수는 동북댐과 주암댐을 통해 하루 35만t을 공급하고, 이후 하수재이용수와 나주댐 등을 활용해 하루 30만t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단계적으로 하루 65만t을 확보기로 했다.

이어 2029년 중 반도체 팹 1기를 완공하고, 2030년 상반기까지 각종 인허가와 시설 점검, 시험생산을 거쳐 6월부터 첫 제품을 양산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실행계획에 대해 지역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전남광주지역 13개 경제단체는 1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는 벼랑 끝에 놓인 전남광주의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지역 청년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2028년까지 얼마나 많은 선행작업을 하느냐에 달렸다. 이 때까지 하나라도 지연될 경우 팍 착공 이후의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사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은 물론 지역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게 중요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나주가 최적지인 이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다음 달 중 이전 말그림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로드맵을 확정할 후 내년부터 이전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5급 3득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 ‘선택·집중’을 통해 효과를 키우는 방향으로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할 방침이다.

즉, ‘어디로 이전하느냐’만큼 ‘이전 이후 얼마나 빠르게 지역에 정착하고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느냐’가 이번 이전의 키포인트라는 얘기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중 나주시가 눈에 띈다.

이는 빛가람혁신도시에 전국 최다인 16개 공공기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혁신도시 대표 성공모델’로 ‘준비된 도시’로서의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에너지·농생명·ICT·문화예술이 연결된 산업생태계가 이미 갖춰져 있고 즉시 입주 가능한 업무공간과 주거·교육·보육 등 정주 여건까지 확보돼 있어 이전기관의 빠른 정착과 시너지 창출 또한 유리하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부합해 있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기능·산업이 연계되는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와 전략적 집중 배치 방침을 거듭 밝힌 이재명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산업적 통합 효과도 플러스 요인이다.

여기에 단순한 공공기관 집적지를 넘어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기반까지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밸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집적해 있어 정책과 연구개발, 기술 실증, 인재 양성, 기업 지원이 한 지역에서 연계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의 장점을 이렇게 하나 하나 나열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2차이전 최적지로 이만한 데가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우리나라 미래 성장축을 다시 세우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다. 이미 검증되고 준비된 혁신생태계를 갖춘 나주로 이전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길 바란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장 정 영민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200 임 의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200 임 의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열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 (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